

2025 유네스코학교 교육의 미래 프로젝트 공모전 우수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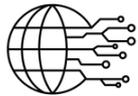
unesco

대한민국 국가조정관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공존을 위한 교육, 협력과 연대의 학교



기후변화



디지털·인공지능



문화유산



인권·다양성



직업·진로

2025 유네스코학교 교육의 미래 프로젝트 공모전 우수사례집

공존을 위한 교육, 협력과 연대의 학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5 유네스코학교 교육의 미래 프로젝트 공모전 우수사례집 공존을 위한 교육, 협력과 연대의 학교

발행일 2026년 2월 28일
발행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인 윤병순
기획 및 편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사업실(신종범, 윤선이, 신혜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이메일 aspnet@unesco.or.kr
전화 02-6958-414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ED-2026-RP-1
ISBN 979-11-90615-71-6

차례



발간사

4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ASPnet) 소개

5

한눈에 보는 2025 우수사례

6

교육과 나눔 그리고 지구

8

개인의 책임 있는 소비 인식 교육

15

기후방패

21

기후위기 탈출은 실천으로부터

27

너와 나, 마을을 잇는 BB 프로젝트

33

디아스포라,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39

별빛친구들 BESTIE

45

비컴비컴

52

유산을 잇다: Legacy Connect

58

지피지기면 백국도 일국이다

64

유네스코학교 학습 주제

70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1



발간사

질문에서 실천으로, 교실에서 세계로의 연결

2025년은 유네스코학교가 ‘공존과 평화를 위한 교육’을 교실에서 시작해 지역과 세계로 넓혀 간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문화다양성, 진로와 직업의 변화 등 우리가 마주한 여러 과제 속에서 전국의 유네스코학교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교육의 미래 프로젝트」는 그 길 위에서 유네스코학교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모전이라는 방식을 통해 학교가 지닌 ‘아이디어의 실험실’로서의 힘을 더욱 또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학생과 교사는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며 탐구와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기후 난민을 이해하기 위한 체험 활동, 디아스포라의 삶을 기록하며 공존의 의미를 확장한 프로젝트, 지역의 세계유산과 지질공원을 국제교류로 연결한 시도, 생태환경을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간 활동들은 모두 질문에서 출발해 행동으로 나아간 소중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연결’의 힘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지역의 문제를 세계의 과제와 이어 보았고, 학교는 국제 파트너와 소통하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교사들은 교과외의 경계를 넘어 협력했고, 학교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자 용기를 북돋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집은 그와 같은 질문과 연결이 수놓은 1년의 기록입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10개의 사례를 포함해,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는 각자의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이미 소중한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ASPnet)는 학교 하나하나가 연결의 거점이 되어 서로를 잇고,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실천의 연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연결을 통해 이 사례집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북돋우며, 각 학교의 실천이 더 넓은 변화로 이어지도록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변화의 현장에서 용기 있게 도전해 주신 모든 학생과 교사, 학부모,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2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행

윤병순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ASPnet) 소개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UNESCO Associated Schools Network, ASPnet)는 1953년 설립된 국제 교육 네트워크이다. 현재 165개국 약 8,900여 개 교육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교원양성기관 등 2026년 2월 현재 499개 교육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ASPnet은 유네스코 헌장과 유엔 헌장의 가치에 기반하여, 교육을 통해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모든 학습자가 지식과 기술을 넘어 역량과 주체성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변혁적 교육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학교 운영, 지역사회 협력을 포괄하는 전학교적 접근(whole-school approach)을 강조한다.

주요 활동 영역은 세 가지이다.

첫째,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을 통해 평화, 인권, 정의, 공동 책임의 가치를 실천한다.

둘째,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형평, 책임 있는 행동을 강화한다.

셋째, 상호문화이해와 문화다양성 존중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과 유산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한다.

ASPnet은 회원 학교를 ‘살아 있는 실험실(living laboratory)’이자 교육 혁신의 거점으로 보고,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천 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함으로써 정책과 교육 현장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회원 기관, 국가조정관, 유네스코 본부가 협력하는 구조 속에서 우수 사례의 축적과 확산, 교원 역량 강화, 학교 간 협력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체계적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2025 우수사례



기후변화



디지털 인공지능



문화유산



인권·다양성



직업·진로

공존과 평화상



기후 변화

문화유산

인권·다양성

교육과 나눔 그리고 지구
산자연중 SAN Edu

주제상



기후 변화

인권·다양성

개인의 책임 있는 소비 인식 교육
세종국제고 IMAGINE

주제상



기후 변화

기후방패
용인외대부설고 위네스코

주제상



기후 변화

인권·다양성

기후위기 탈출은 실천으로부터
경화여고 세계시민부

주제상



기후 변화 디지털·인공지능

너와 나, 마을을 잇는 BB 프로젝트
염광중 우리는 YK 세계시민

주제상



인권·다양성

디아스포라,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경화여고 유로퍼블릭

실험과 도전상



기후 변화

별빛친구들 BESTIE
인천별빛초 월드클래스

협력과 연대상



기후 변화

비컴비컴
연천초 비컴비컴

주제상



문화유산

유산을 잇다: Legacy Connect
인천국제고 I-U

주제상



문화유산

인권·다양성

지피지기면 백국도 일국이다
부안고 대지의 탐험가

산자연중 SAN Edu



- 📍 주제: 기후변화, 인권·다양성, 문화유산
- 📍 유형: 국내+해외
- 📍 구성원: 61명
- 📍 담당교사: 박광은
- 🏆 공존과 평화상 수상



‘교육과 나눔 그리고 지구’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학급 텃밭 운영, 생태환경 주제탐구여행, 사막화 방지를 위한 몽골 생명·사랑·나눔의 숲 조성 등 다양한 실천 중심 활동을 통해 나와 지역·세계 공동체의 연결성을 깨닫도록 하는 미래교육 프로젝트이다. 씨앗을 심고 가꾸어 수확한 작물로 직접 요리해 나누는 경험, 지역·국가·세계의 생태환경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배우는 과정, 해외 친구들과 지구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기후위기·사막화·환경 파괴 등 현실의 문제를 이해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며, 배움이 삶과 연결되고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형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 프로젝트이다.





팀(학교)에서 설정했던 문제 상황 또는 이슈 (학교, 지역, 한국 또는 국제 사회 차원)

오늘날 학교, 지역, 국가, 국제사회는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며 주도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교육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영향력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문제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사회 변화나 국제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청소년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하지 않다. 미세먼지, 폐기물, 산림 훼손 등 지역 환경 문제는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이를 체감하고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과의 연결성을 경험하기 어려웠다.

국가 차원에서는 초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학교 폭력과 학생 정서 불안 문제, 지속 가능한 생태 교육의 부재 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글로벌 시민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국가적, 국제적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교육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기후위기, 사막화, 물 부족, 식량 불균형, 전쟁과 갈등 등 전 지구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일 국가나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이다. 특히 몽골의 사막화 문제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통해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간 협력과 미래 세대의 연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는 ‘교육과 나눔, 그리고 지구’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의 문제를 연결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고, 실천적 활동을 통해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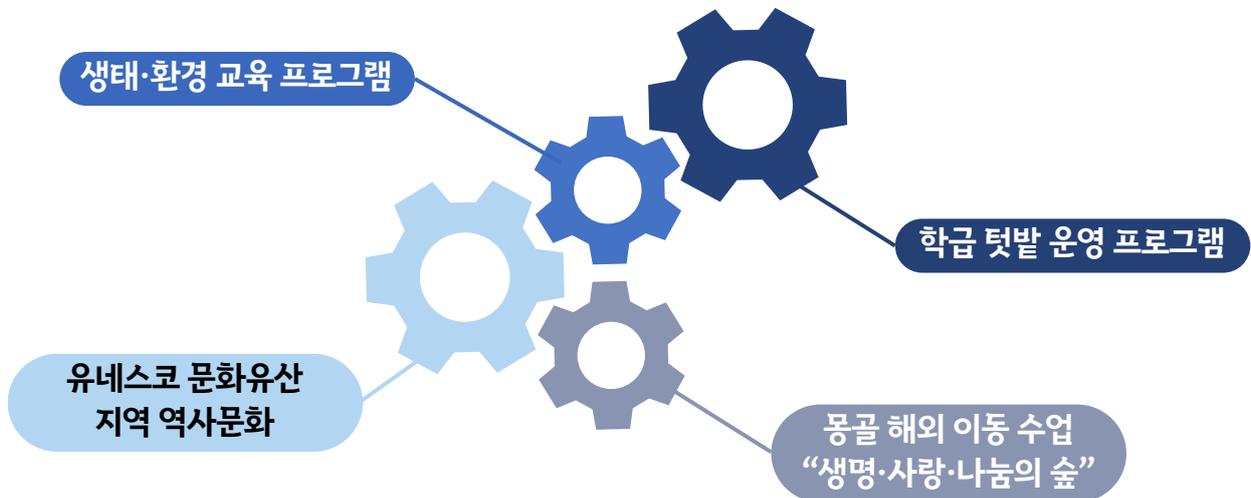


상기 문제 상황 또는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한 활동 (일정, 장소, 주제, 참여자, 내용 등)

본 프로젝트는 앞서 제시한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 나눔 그리고 지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역, 국가 그리고 세계의 문제 해결 경험을 연결하는 실천형 교육 활동을 운영하였다.

먼저 학교·지역 차원 활동으로, **학급 텃밭 운영 프로그램**을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다. 전교생 61명이 참여하여 학급별 텃밭을 직접 설계하고 씨앗 파종부터 물주기, 잡초 관리, 수확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였다. 학생들은 수확한 작물을 직접 조리하여 함께 식사하는 활동을 통해 먹거리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가꾼 결실을 나누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주제로 한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5월), 부산 을숙도 청소년생태센터(7월), 강릉 국립해양센터(11월)를 방문하여 산림 생태계, 하천·습지 생태계, 해양 생태계에 대한 체험 중심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자연환경이 지닌 가치와 생태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대구 근대골목 투어(11월)를 진행하여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지역 역사문화의 보존 중요성**을 체험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문화와 환경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관점을 확장하였다.



2.수행 활동



상기 문제 상황 또는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한 활동 (일정, 장소, 주제, 참여자, 내용 등)

국제사회 차원의 핵심 활동으로, 2025년 5월 19일~23일 몽골 아르갈란트 슝·바이항가이 지역 해외 이동 수업을 실시하였다. 산자연중학교 2, 3학년 학생과 몽골 지식에르뎀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명·사랑·나눔의 숲’ 조성 활동을 통해 약 500그루의 포플러·차차르간 묘목을 식재하였다. 식재 후 생육 모니터링, 현지 학생들과의 협업 워크숍,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공모전을 준비하였고, NGO 푸른아시아와 연계하여 지속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귀국 후에는 월 1회 이상 온라인 회의를 통해 생존율 점검과 책임 돌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2025 유네스코학교 교육의 미래 프로젝트 결선(2025년 11월 2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 참여하였고, 학교·지역·국가·국제사회를 연결한 사례로 ‘공존과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산자연중학교 학생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설계, 실천, 공유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며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마주한 어려움이나 과제, 또는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점과 그 이유

산자연중학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과제가 존재하였다. 먼저 해외 이동 수업 준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와 안전 관리 문제가 큰 과제였다. 몽골 현지 사막화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후 변화가 심하여 이동 및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변수가 발생하였다. 특히 현지 기후 악화로 인해 예정되었던 숲 조성 면적을 일부 축소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정 중 계획했던 일부 생태 탐방 활동은 안전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보험 가입, 사전 교육, 응급대응 체계 수립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큰 과제였다. 해외 이동 수업과 생태 프로젝트는 항공, 숙박, 프로그램 운영비, 식재 비용, 콘텐츠 제작비 등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였으며, 산자연중학교 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지방교육청 특별교부금 신청과 지역사회 후원 연계 등을 통해 일부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예산 승인 일정이 활동 일정과 맞지 않아 계획했던 일부 활동과 콘텐츠 제작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외부 후원 및 기관 협조 과정에서도 행정 절차와 증빙 요구가 많아 진행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또는 결과)에서 팀 구성원들이 새롭게 발견, 학습, 인식, 변화한 점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팀 구성원들은 스스로 배우고 변화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먼저 산자연중학교 학생들은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실천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학급 텃밭 운영과 생태환경 탐구 활동을 통해 작은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꾸준한 관리와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체험하였으며, 스스로 가꾸어 수확한 작물을 조리하여 함께 나누는 경험을 통해 먹거리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몽골 ‘생명·사랑·나눔의 숲’ 조성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와 사막화 문제가 단순히 뉴스 속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된 현실임을 깨달았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과정 속에 땀, 시간, 협력,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며,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리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현지 학생들과의 공동 활동과 온라인 교류를 통해 국적과 문화가 달라도 함께 해결해야 할 지구 공동 과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글로벌 시민 의식과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산자연중학교 교사들은 **학생 주도적 프로젝트**가 교육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발성과 책임감이 발휘되는 순간을 확인하였고, 단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연속성과 실천성**을 갖춘 교육 모델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더불어 지역사회·국가·해외 기관과의 협업 과정에서 **학교 교육이 지역과 세계로 확장될 때 더욱 큰 교육적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체감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교사 모두에게 교육의 목적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과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구성원 모두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 의지를 높인 점이 가장 큰 성과였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 팀 이외의 공동체(학교, 지역사회, 외부 그룹 등)가 달라지거나 영향을 미친 점

본 프로젝트는 학생만의 성장을 넘어 학교 공동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외부 기관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 주도적인 프로젝트 수업의 확산과 교과 간 융합 수업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생태·환경 교육이 전 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프로젝트로 운영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도 실천 중심의 미래교육 모델에 대한 공감과 협력 문화가 형성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작은 실천이 지역과 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춘 학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산자연중학교의 활동이 지역 언론과 기관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지역 생태·환경 교육의 중심 학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학급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을 직접 손질하고 요리하여 함께 나누어 먹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한 끼의 식탁이 완성되기까지의 수고와 생명의 무게를 깊이 체감하며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또한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 부산 을숙도 청소년생태센터, 강릉 국립해양센터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은 장기적인 생태 교육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이 되었다.

국제교류 기관 및 외부 그룹에 미친 영향도 컸다. 몽골 아르갈란트 솜과의 '생명·사랑·나눔의 숲' 조성 활동을 통해 지구환경 문제 해결은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현지 학교와 NGO 단체는 프로젝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지속적인 공동 관리 체계 구축에 참여 의지를 강화**하였다. 나아가 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2025 유네스코학교 교육의 미래 프로젝트 결선을 통해 전국에 공유되었고, 타 학교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며 **학교 간 실천형 국제교류 모델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본 프로젝트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 **학교-지역-국가-세계가 연결되는 공동체적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실천이 공동체 전체의 가치 변화로 확장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세종국제고 IMAGINE



- 📍 주제: 기후변화, 인권·다양성
- 📍 유형: 국내+해외
- 📍 구성원: 8명
- 📍 담당교사: 윤정하
- 🏆 주제상 수상



'개인의 책임 있는 소비 인식 교육' 프로젝트는 팀 이매진이 한국을 비롯한 현재 세계의 환경 교육을 비판하고 이상적인 환경 교육 모델을 세운 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는 기존 학교 환경 교육이 교과서 중심, 주입식 수업에 머물러 학생들의 체감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이상적인 환경 교육 모델을 찾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스위스 학교와의 국제 교류를 통해 각국의 환경 교육 방식과 한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 문제를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지식이 아닌, 일상과 연결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 주도적 참여형 수업안을 직접 설계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수업을 듣는 청자가 아닌, 교육의 주체로서 구체적 환경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 결국 본 팀은 '책임 있는 소비'가 개인, 국가, 국제사회를 잇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파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수업을 비롯해 앞으로의 환경 관련 교육이 이매진이 설계한 이상적인 교육안을 바탕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다.





팀(학교)에서 설정했던 문제 상황 또는 이슈 (학교, 지역, 한국 또는 국제 사회 차원)

팀에서는 플랜테이션과 패스트패션처럼 거대한 국제사회의 문제(특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다. 우선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대규모 삼림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 늘어나고, 파괴 과정에서 온실가스도 배출된다. 또한 패스트패션의 확산은 생산·폐기 과정에서 물 오염을 심화시키며 수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인류는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 영향과 연결을 직접 경험하는 만큼, 문제를 '나와 무관한 일'로 두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의 환경 교육에는 분명한 결함이 존재한다. 환경 관련 교과서 자체가 많지 않고, 사회과 교과서에 포함된 환경 내용도 대체로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우리 학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환경 교육은 몇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교과서·교육과정 측면에서 교육과정 개정 주기의 한계가 있다. 현재 교육과정 개정 주기는 5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길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내용이 남거나, 최신 흐름을 충분히 담지 못해 오개념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 둘째, 수업 방식 측면에서 학생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이다. 환경 교육이 교사가 내용을 전달하고 학생은 듣기만 하는 주입식 형태로 운영될 경우, 학습자의 경험과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는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 나라현립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학생들은 현재 일본의 환경 교육 방식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 학교를 포함한 한국의 교육과정, 그리고 타국의 환경 교육 방식 전반에서 학생들이 환경 문제처럼 범지구적 과제를 이해하고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수행 활동



상기 문제 상황 또는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한 활동 (일정, 장소, 주제, 참여자, 내용 등)

먼저 우리나라에서 환경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정기적인 교과 수업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간혹 환경 수업이 열려도 학생들이 이를 '자는 시간'으로 여기곤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후 일본 나라현립고등학교, 스위스 ISBerne 국제학교 등과 교류를 진행해 이들 학교에 환경 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어떤 방식이었는지 등을 묻는 설문지를 보내고, **그 답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환경 교육이 활발하지 않아 학생들의 환경 의식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지만, 스위스 학생들의 사례에서는 배울 점이 많았다. 특히 환경 수업을 여러 과목과 접목시켜 실행한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일본 나라현립고등학교



한국 세종국제고등학교



스위스 ISBerne 국제학교

이후 자료 조사와 교류 내용을 토대로 팀이 설계한 이상적 환경 수업 모델(학생들에게 환경문제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문제임을 알려줄 수 있고,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닌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했고,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며 함께 보면 도움이 될 자료도 직접 제작하였다. 수업안을 완성한 뒤에는 **세종시 종촌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후 수업 영상을 다시 보며 보완할 점에 대해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았고(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쪽수를 적지 않아 학생들이 수업과 자료를 병행하여 보는 것이 힘들었고, 활동시간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다수 있었음), 이를 바탕으로 수업 내용과 운영 방식을 조금씩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정한 내용으로 **세종국제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 번 더 진행**하였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마주한 어려움이나 과제, 또는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점과 그 이유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힌 건 '좋은 교육 모델을 구상하는 일'과 '학교 수업에서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 사이의 거리였다. 교과서·교육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대안을 수업안으로 만들려면 시간 배분, 학생들의 수준 차,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운영 부담까지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했다. 종촌중학교 수업에서는 참여형 활동을 준비했는데도 수업 시간이 짧고 토론·발표에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 교육 책자도 최신 사례를 많이 담으려다 보니 밀도가 높아졌고, 수업 중 '어느 페이지를 왜 봐야 하는지' 안내가 부족해 학생들이 그냥 참고자료로만 넘기는 문제가 생겼다.

해외 교류 역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고, 질문 방식과 응답 형식이 달라 답변의 깊이가 고르게 나오지 않았다. 특히 일본 사례는 세종국제고와 비슷한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수업 혁신 사례를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이런 시행착오는 바로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후 국제고 수업에서는 책자 내용을 수업 흐름에 맞춰 보강하고, 활동 중 참고할 페이지를 명확히 지정하였다. 또 모둠 토론에서는 질문을 단계별로 던지고 교육자가 중간에 개입해 생각을 확장하도록 도우면서 참여를 끌어올리고자 하였다. 예산, 시간, 정규 교육과정 편성 같은 구조적 제약까지 단번에 해결하진 못했지만, '자료 수업-활동'을 연결하면 학생들의 반응과 몰입이 달라진다는 가능성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또는 결과)에서 팀 구성원들이 새롭게 발견, 학습, 인식, 변화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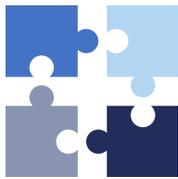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팀 구성원들은 지구 온난화와 같은 국제적 의제가 단순한 환경 지식이 아니라,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기후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수치와 개념 중심으로 설명하려 했으나, 이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발견했다. 이에 우리는 청바지에 들어가는 물의 양, 전자 기기의 버려지는 양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정보 전달'보다 '이해와 공감의 설계'가 교육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학습하였고, 추상적인 국제 이슈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번역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기후 위기를 개인의 윤리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국가·기업·국제기구의 구조적 책임과 시민의 역할을 함께 제시하며 문제를 다층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를 통해 팀은 국제기구의 가치가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실천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 팀 이외의 공동체(학교, 지역사회, 외부 그룹 등)가 달라지거나 영향을 미친 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공동체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업에 프로젝트에서 도출한 경험 기반 환경 교육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은 환경 문제를 추상적인 지식이 아닌 자신의 일상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토의와 포스터 제작, 전시 활동을 통해 학생 개인의 의견을 모두 함께 나누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수업 참여자와 더불어 다른 학생들에게도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학교 내 포스터 전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관람과 대화를 유도하였고, 환경 문제를 개인의 소비 습관, 국가와 기업의 책임, 미래 세대와의 공존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장을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환경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외 학교와의 교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환경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 주도의 수업 설계와 결과 공유가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교육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종촌중학교 수업

- 학생 주도 수업 설계
- 환경 교육



용인외대부설고 위네스코



- 📍 주제: 기후변화
- 📍 유형: 국내
- 📍 구성원: 10명
- 📍 담당교사: 조경호
- 🏆 주제상 수상



본 프로젝트는 기후위기의 학습권 침해를 막자는 목표로 시작된 학생 주도형 기후 교육 프로젝트이다. 더운 여름철 교실 별 온도 차이를 발견하고, 지역 내에서 환경 불평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자 환경 교육 키트 개발과 연계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한 달 간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생 26명을 ‘기후지킴이’로 양성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자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1. 문제 설정

팀(학교)에서 설정했던 문제 상황 또는 이슈 (학교, 지역, 한국 또는 국제 사회 차원)

용인외대부설고등학교는 교실이 총 세 개의 건물에 위치해 있다. 각 반은 온도와 채광, 환기 조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특히 여름철에는 “너무 더워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건물에 따라 학습 환경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문제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기후위기는 뉴스나 보고서 속 미래의 위협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후위기가 학교의 문턱을 넘어 우리의 교실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다.

이 경험을 계기로 “냉방기구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거나, 시설이 노후된 학교는 더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학습권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기후위기와 교육 격차를 연결해보자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었다. 이후 교실 온도와 학습 환경, 집중력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지역별 학교 냉방기 보급률과 교육시설 격차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이 문제가 용인외대부설고등학교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즉, 기후위기는 이미 교육 환경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실제로 공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충분한 교육이나 해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수의 학생이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습권이나 환경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 학교 환경 교육은 일방향 강의 형식이거나 단발성 행사에 그쳐 참여도와 실천 지속성이 낮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교실 내 환경 격차를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닌 ‘기후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문제로 재정 의하고, 학생이 이를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2.수행 활동



상기 문제 상황 또는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한 활동 (일정, 장소, 주제, 참여자, 내용 등)

기후방패 프로젝트는 총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 재인식이었다. 학생이 주체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환경 교육 이후 실제 행동 변화가 크지 않으며 토의·참여형 수업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실 속 기후위 기 인식 교육과 모듈형 기후방패 툴킷’을 기획했다. 온도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가정과 지역사회로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는 집단으로 초등학생을 선정해, 기초 개념 학습과 관찰·실험 중심 활동을 결합한 커리큘럼을 설계했다. 다양한 소재로 차광막을 제작해 비교 실험을 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함으로써, 기존 옥상 기획을 교실 안으로 모듈화 하고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01

02

03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교실 내 온도 격차라는 문제에서 출발해, 교실 온도를 친환경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탐색했다. 실제로 교실별 온도를 측정하며 문제의 존재를 확인했고, 식생·건축·기획 팀으로 나누어 옥상 환경 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 루버 설치를 통한 일사량 차단과 학생 주도형 생태 옥상 조성을 제안했으나, 옥상 면적 대비 온도 저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학교와의 소통 과정에서 옥상 개방 및 학생 출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공간 개선만으로는 지속적이고 확산 가능한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프로젝트의 방향을 인식 개선 중심으로 전환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행이었다.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와 협력하여 31일간 30개의 키트를 활용해 2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이후 센터 피드백을 통해 친환경 습관 형성과 긍정적 정서 변화를 확인했으며, 아이들이 환경 문제를 스스로 설명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활동 과정에서 제작한 그림을 굿즈로 제작해 펀드레이징을 진행하고, 이를 신규 키트 제작 자원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마주한 어려움이나 과제, 또는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점과 그 이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큰 어려움은 **기획 단계에서 구상한 아이디어를 실제 공간과 제도 안에서 구현하는 과정**이었다. 초기에는 학교 옥상 개선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환경 변화를 목표로 했지만, 학교 교칙과 시설 관리 규정, 안전 관련 지침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옥상 개방 여부, 구조물 설치 가능성, 안전 책임 소재 등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행정적·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조사하고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학생 주도 프로젝트가 제도적 틀 안에서 실행되기까지의 현실적 장벽을 체감했다.

또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 과정**도 쉽지 않았다. 프로젝트 초기에 가장 먼저 컨택했던 지역 센터와는 일정 조율과 프로그램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관과의 소통 방식, 제안서 구성, 프로그램의 구체성 부족 등 우리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도 돌아보게 되었다. 이후 다른 센터를 탐색하고 협력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했다.

아쉬운 점은 프로젝트의 확장 가능성을 더 넓게 실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실과 한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실행에는 성공했지만, 여러 학교에 동시에 적용하거나 제도화 가능성까지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또한 장기적 행동 변화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점 역시 과제로 남았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때 보완해야 할 지점으로 남아 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또는 결과)에서 팀 구성원들이 새롭게 발견, 학습, 인식, 변화한 점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 이전에는 기후위기를 주로 탄소 감축이나 에너지 사용과 같은 환경 관리의 문제로 인식했다면, 이번 경험을 통해 그것이 **자원의 배분과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의 문제**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교실 환경이 다르다는 사실은, 환경이 누구에게는 불편함이고 누구에게는 권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를 사회 구조와 연결해 사고하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제약과 이해관계자의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아이디어의 참신함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 구조와 설득 과정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체감했다.

팀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관점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다. 식생·건축·기획으로 역할을 나누었지만, 실제 논의에서는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은 곧 행정적 현실성과 연결되었고, 교육 기획은 다시 구조적 제약과 맞닿아 있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다양한 시각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학습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닌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재인식하게** 한 계기였으며, 동시에 문제 해결의 방식을 구조적으로 사고하게 만든 경험이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 팀 이외의 공동체(학교, 지역사회, 외부 그룹 등)가 달라지거나 영향을 미친 점



팀 내부의 변화와 별개로, 프로젝트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는 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센터장님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은 매일 센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자신이 키우는 식물을 확인하고 친구들의 식물과 비교해보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과연 아이들이 이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물의 성장 속도를 이야기하고, 물 주는 양을 스스로 조절해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교육 이후에는 정서적 변화도 나타났다. 단순히 환경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내가 돌보면 달라진다”는 경험을 통해 책임감과 성취감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일부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님께 배운 내용을 설명하거나, 전등을 끄는 행동을 먼저 제안했다는 피드백도 받았다. 이는 단발성 체험이 아니라, 생활 속 행동으로 이어진 변화였다.

또한 수업 시간 동안의 몰입도 역시 인상적이었다. 관찰 실험과 비교 활동을 진행할 때 아이들은 결과를 예측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기존의 일방향적 환경 교육과는 다른 참여 경험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교육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를 경험하고 일상 속 실천으로 연결하도록 만든 계기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남겼다.

경화여고 세계시민부



- 📍 주제: 기후변화, 인권·다양성
- 📍 유형: 국내
- 📍 구성원: 20명
- 📍 담당교사: 이탁근
- 🏆 주제상 수상



이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를 주제로 활동을 진행한 사례이다. 경화여자고등학교 세계시민부는 현대 사회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전시 관람 및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관련 내용이 장기적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기후 난민에 대한 구체적 체험 경험을 제공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체적 사고와 포용력의 확장을 도모하였으며, 한국 사회의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



1. 문제 설정

팀(학교)에서 설정했던 문제 상황 또는 이슈 (학교, 지역, 한국 또는 국제 사회 차원)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기후 난민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의 코페 장관이 물에 잠겨버린 투발루의 영토에서 연설을 진행하는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기후 변화가 지구촌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기후 난민’이라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기후 난민들은 국제 사회의 노력을 통해 보호받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과 달리 여전히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후 변화는 단순히 예측 불가한 재해를 입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기본적인 인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보다 커다란 비극을 초래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비극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어 진행됨에 따라 머지않아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수 있는 **지구촌 공동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시민부는 기후 변화와 기후 난민 문제가 지구촌 세계시민의 연대와 관심을 통해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세계시민부는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변화와 기후 난민 문제의 실태를 알리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연대의 걸음에 동참**하고자 해당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다.

[참고] 투발루 해수면 상승?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교장관은 투발루의 한 해변에서 녹화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듯, 투발루에서 우리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라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다"며 눈앞에 실제로 닥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음.

출처: 연합뉴스



상기 문제 상황 또는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한 활동 (일정, 장소, 주제, 참여자, 내용 등)

세계시민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난민 문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시민적 연대의 필요성을 전하고자 ‘기후위기 탈출은 실천으로부터’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활동은 해당 학교 내 체육 교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로젝트는 크게 폐품을 활용한 조형물 전시와 방탈출 형식의 체험형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전시회**에서는 기후재해의 심각성을 표현한 작품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주제로 한 작품을 함께 전시하였다. 작품 제작에는 일상 속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폐자재들을 재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경 보호가 거창한 행동이 아닌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전시 공간 입구에는 팀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상영하여, 주제의 심각성을 시청각적으로 전달하였다.

방탈출 프로그램의 경우 기후난민팀과 비난민팀이 협력하여 미션을 해결하는 참여형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참가자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기후위기 관련 문제를 해결하며, 난민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 기후 난민 문제가 특정 지역의 이슈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전 지구적 과제를 알리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고, 약 95% 이상이 활동이 기후 난민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며, 프로젝트의 의의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마주한 어려움이나 과제, 또는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점과 그 이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했다. 우선 제한된 시간 내에 전시회와 방탈출이라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간 관리와 일정 조율**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프로그램별로 세부적인 준비 사항이 많았고, 팀원별로 맡은 역할이 다양하다 보니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다.

특히 전시물 제작 초기에 명확한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주제의 일관성을 맞추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방탈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적절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번의 모의 활동과 수정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

더불어 **공간 확보** 또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 큰 과제였다. 학교 내에서 전시회와 방탈출을 함께 진행할만한 장소를 찾기 어려워,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조를 변경하고 배치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또는 결과)에서 팀 구성원들이 새롭게 발견, 학습, 인식, 변화한 점

01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기후 난민 문제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인권과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후 변화와 난민 문제가 서로 별개의 주제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았으나, 조사와 기획 과정을 거치며 두 문제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02

전시회에서는 직접 폐품을 활용해 조형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 보호는 거창한 행동이 아닌,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방탈출 프로그램에서는 기후 난민 문제 해결에는 개개인의 인식 변화뿐 아니라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는 의견이 팀 구성원들 사이에서 많았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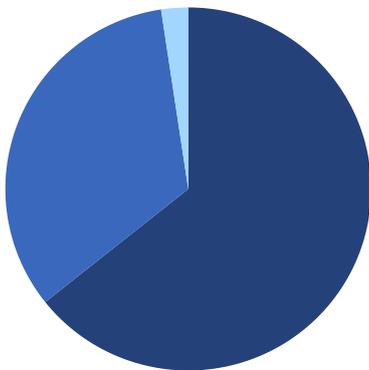
아울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공감하고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교육이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조율하며 하나의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나갔고, 이를 통해 협력의 가치를 되새기는 동시에, 세계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 팀 이외의 공동체(학교, 지역사회, 외부 그룹 등)가 달라지거나 영향을 미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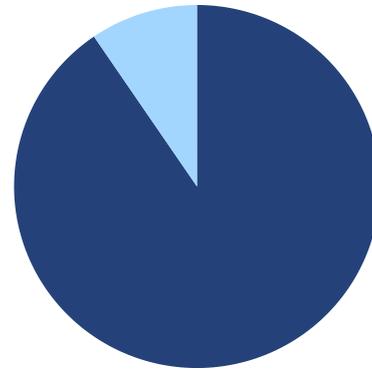
프로그램 진행 후 방탈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소감 설문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 중 27명이 기후 난민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14명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체의 97.7%가 프로그램 참여 후 기후 난민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답한 수치이다. 또한 참가자 38명이 이후에도 난민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90.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기후난민에 대한 이해도 향상



- 📍 기후 난민에 대해 잘 알게 됨
- 📍 기후 난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됨
- 📍 기타

난민 문제 지속적 관심 표현



- 📍 난민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겠음
- 📍 기타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프로그램이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기후 난민 문제의 심각성과 실천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지구촌 사회의 상생**에 기여한 의미 있는 활동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염광중 우리는 YK 세계시민



- 📍 주제: 기후변화, 디지털·인공지능
- 📍 유형: 국내
- 📍 구성원: 20명
- 📍 담당교사: 변지선
- 🏆 주제상 수상



본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마을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 지역의 특성과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학교 수업과 지역 사회로 확장하여 실천하는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이다. 사회과 수업과 교과 융합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은 마을의 공간, 자원, 공동체 이슈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체험·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를 공유하였다. 특히 학교 축제와 지역 축제에 참여하여 프로젝트 성과를 지역 주민과 나누며,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이자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프로젝트는 배움이 학교를 넘어 마을과 세계로 확장되는 교육적 전환을 실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팀(학교)에서 설정했던 문제 상황 또는 이슈 (학교, 지역, 한국 또는 국제 사회 차원)

팀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우리 마을'을 이해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핵심 이슈로 설정하였다.



먼저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교과서 속 사회 문제나 추상적인 지역 개념은 학습하지만, 실제 자신이 생활하는 마을의 특성과 과제에 대해서는 깊이 탐구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배움이 현실과 분리되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지역 사회 차원으로 확장해 보면, 고령화, 세대 간 단절, 지역 자원의 활용 부족 등 마을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변적 존재로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지역은 학생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아닌 '지나치는 생활 공간'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한국 사회 차원에서는 지역 불균형과 공동체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소년의 지역 참여와 시민성 교육이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주체인 청소년이 지역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은 지역 소멸과 공동체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국제 사회 차원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곧 국가와 세계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유네스코는 지역 기반 학습을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실천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팀학교는 '우리 마을 지역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마을의 문제를 이해하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전환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수행 활동



상기 문제 상황 또는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한 활동 (일정, 장소, 주제, 참여자, 내용 등)

학생들이 우리 마을을 이해하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마을 지역화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연중 운영되었으며, 학교 수업과 동아리 활동,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2025학년도 1학기에는 3학년 사회과 수업을 중심으로 '우리 마을 노원·도봉 지역 이해'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활동 장소는 학교 교실 및 인근 마을 공간이었으며, 참여자는 3학년 전체 학생과 담당 교사였다. 학생들은 마을의 지리적 특성, 생활 인프라, 문화 자원, 지역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마을의 강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후 사회-미술 교과 융합 프로젝트로 확장하여, 학생들은 마을을 알리는 홍보 굿즈 제작과 지역 안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였다. 또한 코딩 동아리 학생들과 연계하여 마을 안내 앱 제작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정보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경험을 하였다.



부채 만들기
굿즈 전시·판매



전시·체험 부스
(금빛제, 비석골 축제)

2025학년도 2학기에는 프로젝트 결과를 학교 축제인 금빛제 기간 중 전시·체험 부스로 운영하였다. 장소는 교내 축제 공간이었으며, 전교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직접 기획한 전시와 체험 활동을 통해 마을의 가치와 문제를 공유하고 소통하였다. 더 나아가 지역 축제인 비석골 축제에 초청받아 부스를 운영하며, 프로젝트 결과를 지역 사회와 실제로 연결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마을을 '생활 공간'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지역 문제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마주한 어려움이나 과제, 또는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점과 그 이유

마을 지역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성과와 함께 몇 가지 어려움과 한계도 경험하였다. 먼저 **학생 참여의 깊이 차이**가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초반에는 마을 조사와 자료 수집 활동이 교과 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부 학생들에게는 과제 수행 위주의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학생 간 주도성 및 참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문제의식을 형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경험 부족과 제한된 수업 시수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학교와 지역 연계의 지속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 기관 및 마을 단체와의 협업은 주로 축제나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장기적인 협력 구조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학교 일정과 지역 기관의 운영 일정이 상이하여 정기적인 공동 활동을 계획하는 데 제약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활동은 단발성 체험에 그치게 되었다.

아울러 **프로젝트 결과의 확산 범위**에도 한계가 있었다. 학교 축제와 지역 축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였으나, 시간과 홍보의 제약으로 프로젝트의 취지와 학생들의 탐구 과정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마을 주민과의 심층적인 의견 교환이나 후속 실천으로까지 연결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계는 프로젝트 운영 경험 부족, 교육과정과 지역 연계 활동 간의 시간적 제약, 학교와 지역 사회 간 협력 구조의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학생 사전 역량 강화,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체계적 구축, 결과 공유 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이러한 과제를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또는 결과)에서 팀 구성원들이 새롭게 발견, 학습, 인식, 변화한 점

우리 마을 지역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팀 구성원들은 배움의 방향과 교육의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먼저 학생들은 '마을'이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와 가능성을 지닌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교과서 속 지역 개념을 넘어 실제 마을을 조사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역 문제는 누군가 해결해 주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라는 시민적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과제 수행 중심으로 참여하던 학생들이 점차 마을의 특성과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주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결과를 학교 축제와 지역 축제에서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배움이 실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 교사들은 프로젝트형 수업이 학생 참여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지만, 사전 설계와 지역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학습하였다. 교과 간 협력과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확장시키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학교 교육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팀 구성원 모두는 학교 교육이 지역을 기반으로 할 때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더욱 견고해진다는 점을 공감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 팀 이외의 공동체(학교, 지역사회, 외부 그룹 등)가 달라지거나 영향을 미친 점

마을 지역화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 팀 구성원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변화와 영향이 나타났다. 먼저 **학교 공동체 차원에서는 프로젝트형 수업과 지역 연계 활동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학교 축제 기간에 운영된 지역화 프로젝트 전시 및 체험 부스를 통해, 다른 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이 지역을 주제로 한 학습 활동의 의미와 가능성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향후 교과 및 동아리 활동에서 지역 연계 프로젝트를 시도하고자 하는 논의로 이어졌다.

지역 사회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전시와 콘텐츠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지역 축제에 참여하여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주체임을 지역 사회에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일부 주민과 지역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활동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며, 향후 학교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외부 협력 기관 및 단체와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프로젝트를 통해 형성된 협력 경험은 일회성 참여를 넘어, **학교 교육과 지역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교육 주체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 교육이 지역 사회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하였으며, 청소년의 참여가 공동체 활성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화여고 유로퍼블릭



- 📍 주제: 인권·다양성
- 📍 유형: 국내
- 📍 구성원: 13명
- 📍 담당교사: 김범식
- 🏆 주제상 수상



'디아스포라,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는 단순히 타인의 이야기를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안의 디아스포라를 발견하고, 더 나은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주의 형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직접 기록하고 공유하는 프로젝트이다. 경기 광주 이슬람 사원(종교 공동체), 청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고려인 이주민의 역사와 현재), 울산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 현장을 찾아 인터뷰 및 기록 제작(사진, 영상, 소책자)을 수행했고, 교내 전시와 발표를 통해 우리 역시 넓은 의미에서 디아스포라적 존재임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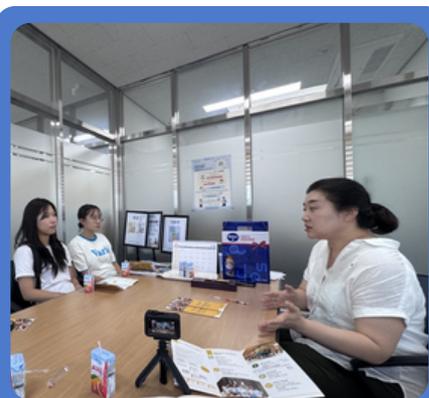


1. 문제 설정



팀(학교)에서 설정했던 문제 상황 또는 이슈 (학교, 지역, 한국 또는 국제 사회 차원)

- **학교 차원:** 다문화 이슈를 교과서 지문 수준에서 파편적으로 접해 실제 이웃으로서의 만남과 대화 경험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 결과 고정관념과 차별적인 표현이 무의식적으로 재생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 **지역 차원:** 지역 내 종교시설(이슬람사원)에 대한 이해가 낮고, 예배 예절, 호칭, 촬영 방법 등의 소통 정보가 부족해 오해가 누적되고 있었다.
- **한국 차원:** 무슬림, 고려인, 난민, 특별기여자 등 이동의 유형이 다층화되었음에도제도의 안내 및 지원이 단편적이고, 지역별 편차가 컸다. 미디어에서는 이러한 디아스포라를 위협 혹은 동정 프레임으로만 그려내고 있어서 그들의 실상을 가리는 경우가 많았다.
- **우리의 정의:**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닌 상호 이해와 만남의 부재로 설정하고 현장 탐방을 통해 디아스포라를 기록하고 공유 및 확산을 통해 더 나은 공존을 모색하고자 했다.



청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고려인 이주민의 역사와 현재)



울산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

2. 수행 활동



상기 문제 상황 또는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한 활동 (일정, 장소, 주제, 참여자, 내용 등)

1. 현장 탐방

청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 방문일: 2025년 7월 26일(토)
- 참여자: 학생 4명, 지도교사 1명
- 내용: 지원센터 시설 투어, 관계자 인터뷰(고려인, 이주민 정착 지원 체계), 한국어 수업 참관



경기 광주 이슬람 사원

- 방문일: 2025년 7월 8일(화)
- 참여자: 학생 5명, 지도교사 1명
- 내용: 사원 투어, 관계자 인터뷰 (설립 배경, 지역과의 관계, 예배 예절)

울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방문일: 2025년 7월 29일(화)
- 참여자: 학생 4명, 지도교사 1명
- 내용: 센터 프로그램 투어, 관계자 인터뷰(정착 지원 정책 및 사례 공유)



2. 콘텐츠 제작

- 기간: 2025년 8~10월 / 참여자: 동아리 학생 12명 지도교사 1명
- 영상 및 문서 기록 제작(유튜브, 리플렛)



3. 동아리 발표회

- 날짜: 2025년 10월 21일(화)
- 참여자: 동아리 학생 12명 재학생 300명 이상
- 내용: 디아스포라 관련 영상 상연, 퀴즈 풀기, 키링 만들기 등



4. 후속 탐구 활동

- 기간: 2025년 12월 22일(월)~30일(화)
- 참여자: 동아리 학생 12명 재학생 100명 이상
- 내용: 디아스포라 관련 도서 북 큐레이션, 디아스포라 책갈피 배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마주한 어려움이나 과제, 또는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점과 그 이유

1. 현장 탐방 기관 섭외

학생 일정과 기관 가능 시간이 맞지 않아 조율에 시간이 소요되었다. 당초 계획한 안산 고려인 문화센터 방문은 청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대체했고, 저자 인터뷰는 시기 조율을 하지 못해 불발되었다.

2. 언어 장벽

고려인 또는 아프간 난민을 직접 만나려면 현지인 통역이 필요한데 기관에서는 따로 제공하지 않았고, 직접 구해보려 하였으나 비용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슬람사원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했고, 아랍어 음성은 사후 AI 번역으로 자막을 제작했다.



경기 광주 이슬람 사원(종교 공동체) 방문

3. 학사 일정

학교 행사 및 시험 기간과 겹쳐서 전원이 동시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 방학 중 팀을 나눠서 진행하였다. 이후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추가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또는 결과)에서 팀 구성원들이 새롭게 발견, 학습, 인식, 변화한 점

박O희

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디아스포라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큰 울타리가 존재할 것이라 여기며 우리를 받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오히려 따뜻하게 반겨주는 모습에 내 착각이었음을 깨달았다. 동시에 활동 시작 전에는 디아스포라와 우리가 같은 존재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탐구를 이어가면서 그 의미가 훨씬 확장된 개념인 새로운 땅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임을 깨달았다.



김O은

이 활동을 통해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졌다. 막연한 거리감보다는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생겼고, 사회 문제를 직접 보고 듣는 경험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지

디아스포라 문제를 단순한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후 탐구에서도 돕는 시선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분석하려는 태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안O수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암묵적 규칙들이 외국인들에게는 낯선 것일 수 있고, 반대로 우리도 타국에서는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우리와 문화가 다름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O진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언어와 문화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지역 사회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였으며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역사 속 개념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사회 현상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최O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자립과 상호 이해를 돕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태도의 중요성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성장을 경험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 팀 이외의 공동체(학교, 지역사회, 외부 그룹 등)가 달라지거나 영향을 미친 점



북 큐레이션

- **학교 내부:** 학교 안에서는 디아스포라 영상, 리플렛 제작, 키팅 및 책갈피 배부, 북 큐레이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생활 속 언어로 확장하였다. 동아리 발표회를 통해 학생뿐 아니라 다수의 교사가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관심을 가지는 등 적지 않은 파급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키팅과 책갈피처럼 늘 휴대하는 물건에 핵심 메시지를 담아, 추상적 개념을 손에 잡히는 기억으로 전환한 점이 호응을 얻었다.



책갈피

- **지역 사회 및 외부 연계:** 방문 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 꾸준히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문의하였지만, 최소 몇 년 동안 지속할 장기 프로그램을 원하셨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단, 관계 기관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었던 점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을 만들 수 있었다.



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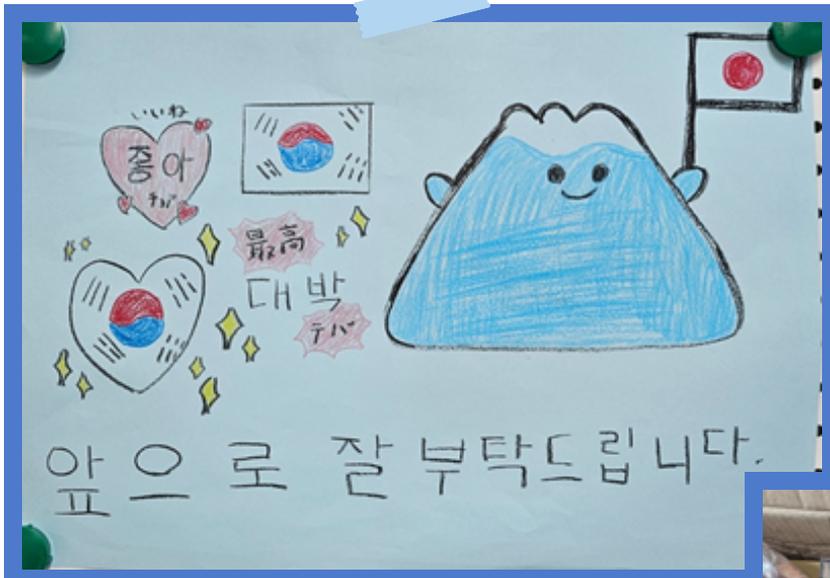
인천별빛초 월드클래스



- 📍 주제: 기후변화
- 📍 유형: 국내+해외
- 📍 구성원: 8명
- 📍 담당교사: 박화영
- 🏆 실험과 도전상 수상



공존의 교육이라는 대주제 속 기후·환경 관련 교육을 통해 학교, 마을, 국제교류 학교라는 단계를 거쳐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앎과 실천, 연대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국제공존을 위한 별빛초등학교 팀이라는 문장의 약어 BESTIE는 프로젝트명으로, 단어 그대로 '가장 친한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것은 자연과 세계인 모두를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하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팀(학교)에서 설정했던 문제 상황 또는 이슈 (학교, 지역, 한국 또는 국제 사회 차원)



- **학교** : 인천별빛초는 영종도의 신도시에 있으며 갯벌을 간척한 땅에 건설된 신도시이면서 지척에 마시안 갯벌, 금홍염전, 백운산 등 자연환경이 풍부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 학생들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공원, 산, 바다를 두루 체험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별빛초는 신도시의 과밀 학교로, 학생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1300명에 달하는 전교생이 함께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대하는 경험을 쌓으면 가족과 마을까지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 여겨 프로젝트를 전개하게 되었다.



- **지역** : 신도시 특성 상,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28명에 육박하는 등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비율이 높다. 건설공사 쓰레기, 배달쓰레기가 많고 육아에 사용하는 물티슈, 마스크 등 일회용품 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편이다. 한편 학교와 거주지,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다회용기 포장에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프로젝트 진행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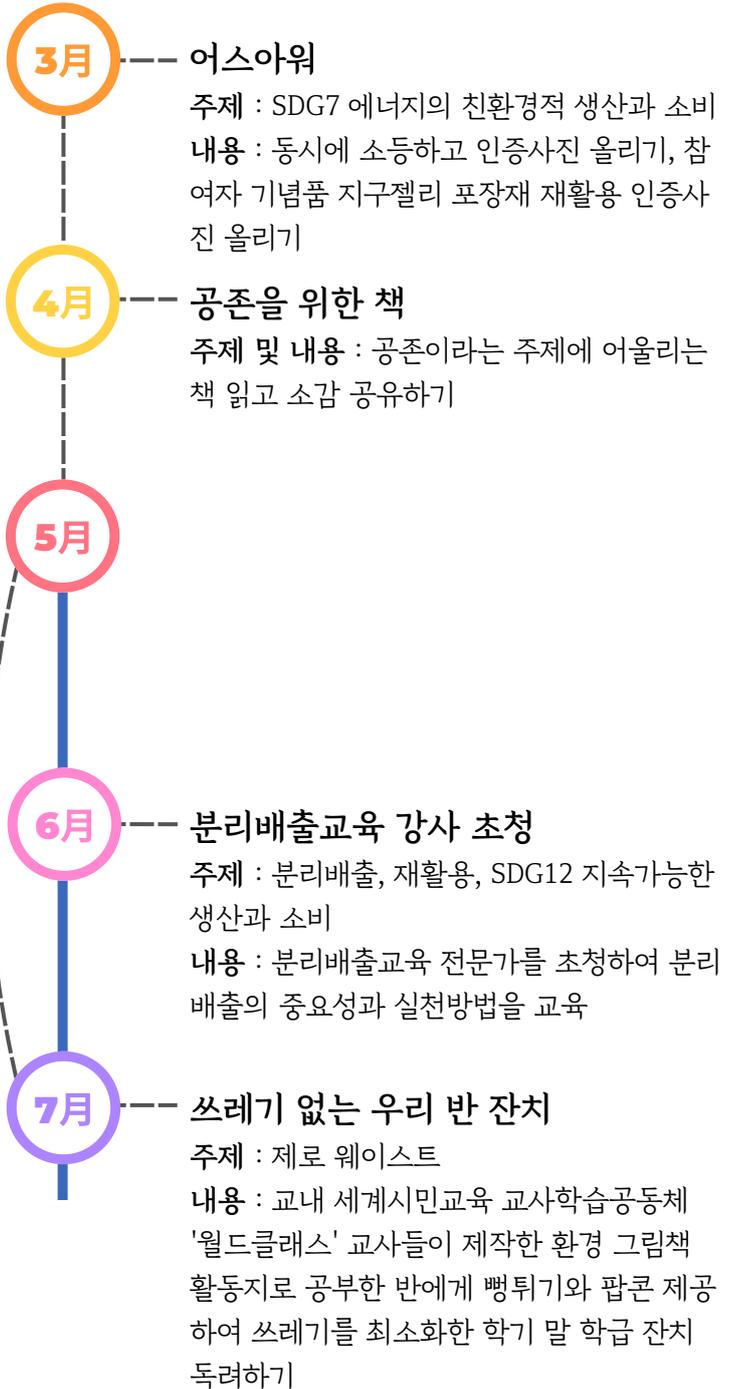
- **한국** :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한 영종도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고, 항공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지구온난화로 인한 제트기류 불안정으로 인한 항공기 문제 등 환경문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다. 위치적 특성 상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들이 저연령 때부터 서로의 문화를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국제사회** :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허브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 신도시라는 집약적인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을 통한 태도의 변화와 실천을 도모했다. 프로젝트 베스티를 통해 학생들에게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제로 웨이스트) 자원을 절약하는 태도, 재활용 및 새활용의 개념과 실천,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연대의 방법을 학교, 가정, 마을, 세계인과 공유하는 교육을 하고자 했다.



상기 문제 상황 또는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한 활동 (일정, 장소, 주제, 참여자, 내용 등)



국제교류학교(학급)와의 환경&평화 캠페인 (일본)

주제 : SDG16 평화·정의·포용, SDG17 지구촌 협력 강화, 기후변화대응, 인권·다양성
 내용 : 평화의 상징 종이학을 이면지를 재활용하여 접고, 평화 캠페인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 행동 함께하기, 잔반 제로 캠페인

2.수행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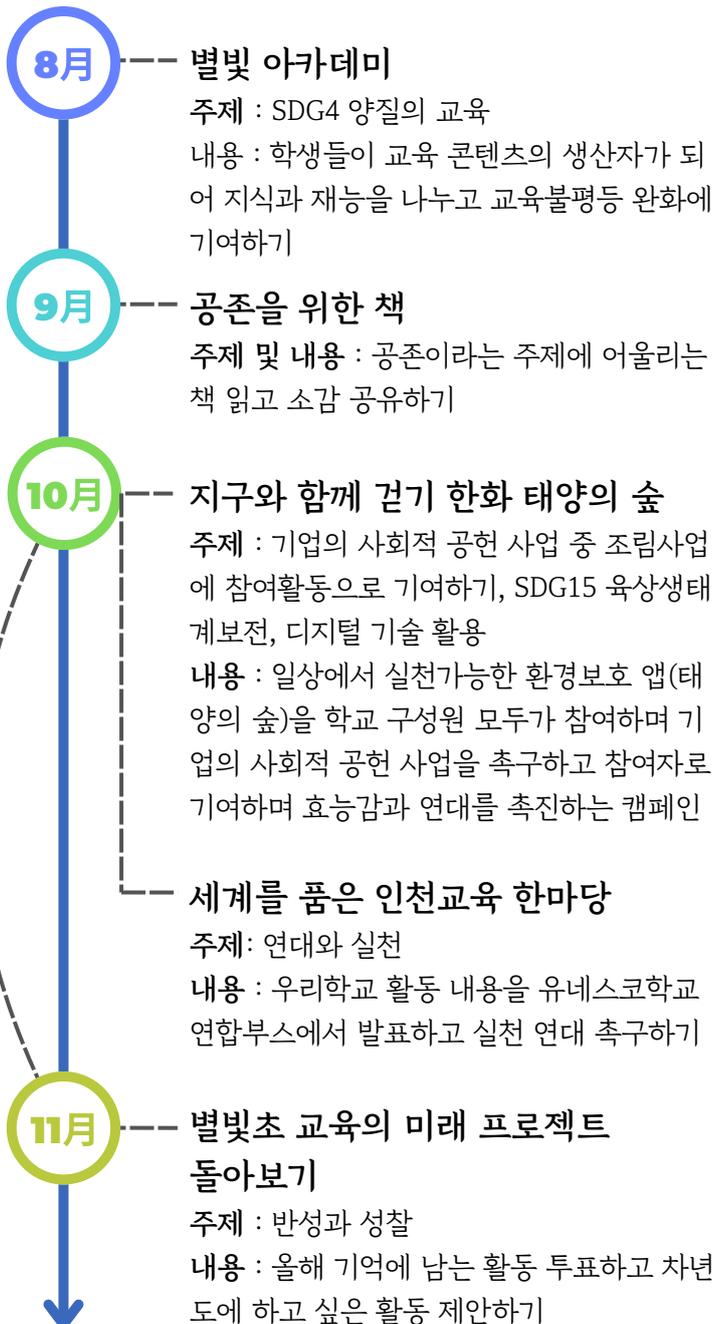
상기 문제 상황 또는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한 활동 (일정, 장소, 주제, 참여자, 내용 등)

용기내 친구 챌린지 (5~11월)

주제 : 제로웨이스트, 기후변화대응
내용 :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 유리용기, 다회용기 등을 이용하여 음식 포장하기 챌린지를 학교 단위로 실시하여 나와 이웃의 실천을 독려하고 응원하는 캠페인

국제교류학교(학급)와의 환경&평화 캠페인 (인도네시아)

주제 : 기후변화 위기 대응 행동 함께하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마주한 어려움이나 과제, 또는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점과 그 이유

1. 어려움

- 단발성 프로그램들의 집합이 되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점진적으로 구체화 되고 발전하는 프로젝트를 하기 어려웠음. 차년도에는 단계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참여자들도 점점 몰입하고 산출물을 낼 수 있도록 기획이 필요함.
- 앱 나이 제한으로 인해 에코야 얼스, 포레스텟 등 다양한 환경보호 실천 앱 등을 제안하지 못함. 접근성이 좋은 다른 디지털 기술 등을 발굴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고 학부모 참여 외에도 나이 제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 볼 예정임.
-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부족한 영종도 신도시로, 단체 플로깅 등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마시안 갯벌에서 플로깅을 하자는 의견이 꽤 있어서 내년에는 버스 대절 예산 등을 확보하여 단체 이동 후 플로깅을 할 수 있도록 이동 및 안전 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임.

2. 과제: 세계시민교육을 지원하는 '루미너스' 학생들을 2학기에 지원받으니 기존 스케줄 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함. 내년에는 학년 초에 지원을 받고 루미너스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함.

3.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점

- 용기내 친구 챌린지의 후속 활동으로 영종 하늘도시 일대를 배경으로 친환경 정책을 실시하는 가게를 발굴하여 학교 세계시민교육 플랫폼에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홍보하는 <지구친구가게 발굴하기>를 계획했었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누적되지 않아 실행하지 못함. 마을에서 친환경 정책을 실시하는 가게 정보를 공유하고 감사패를 증정하여 마을단위의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으로 기획했으나 증정 기준이 모호하고 가게들의 협조 여부가 불투명하여 추진하지 못함. 차년도에 교사학습공동체, 관리자, 루미너스 학생들과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듬고 재추진하고자 함.
- 학생회와 협력하여 다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부족, 학생회 학생들의 모임시간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음.



프로젝트 수행 과정(또는 결과)에서 팀 구성원들이 새롭게 발견, 학습, 인식, 변화한 점

1. 발견

- 프로젝트 베스티는 '공존을 위한 교육'의 세부 주제 영역 중 '기후변화'를 선택하였다. 2025년 3월 말 별빛초에서 실시한 '지구를 위한 한 시간 소등' 행사에 참여한 350개의 가정을 대상으로 가장 관심있는 세계시민교육 분야를 설문조사하였다. 응답결과로 '기후, 생태'가 가장 높은 비율(63%)을 차지하였다.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 또한 '플로깅'(40%)으로 나타나, 구성원의 관심사를 원동력으로 삼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프로젝트의 주안점으로 삼았다. 재활용, 업사이클링, 제로 웨이스트 문화 정착 및 학생들의 실천, 효능감, 학교-마을-세계와의 연대감 증진을 주요 키워드로 삼아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을 구성하였다.

2. 학습

- 올해 국제교류를 통한 연합 캠페인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영어권 외는 통역이 가능한 꼭 필요하다고 인지하게 되었으며, 인천교육청 산하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등에서 통역 가능 인사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원활한 국제교류를 도모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3. 인식

- 라이프 스트로우처럼 적정 기술이라고 개발하였지만 효능이 없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활동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학습지로 종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재활용하거나 종이를 쓰지 않고도 맨손수업으로도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할 방법이 있는지 논의하기로 했다.

4.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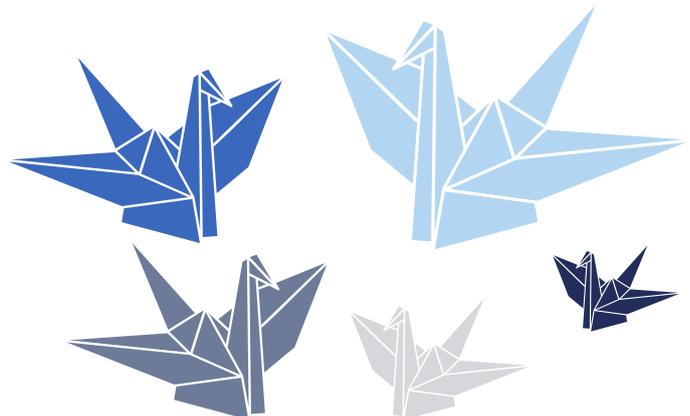
- 교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계기였다. 주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키며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즐겁게 연대하는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 교내 교사학습공동체 '월드클래스'를 2024년부터 운영하였으며,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성취기준 기반 프로젝트 수업 자료 등을 개발하고 환경 그림책 활동지를 제작하는 등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과정 문해력이 향상되었다. 학생들이 좀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 팀 이외의 공동체(학교, 지역사회, 외부 그룹 등)가 달라지거나 영향을 미친 점

용기내 친구 챌린지를 통해 지역사회가 학교의 교육 방향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분리배출 및 생태교육 외부강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교사가 많아졌으며, 관리자의 협력도가 높아지고 일본과의 평화의 종이학 프로젝트 등에서 학생회 담당 교사 등 업무 간 공동 활동과 협력이 유연하게 변화하였다.

교육의 미래 한마당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다른 학교의 활동을 보고 우리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여러 제안을 하였고, 보다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기여가 필요한 활동들을 전개하며 가족이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으로 거듭났다.



연천초 비کم비کم



- 📍 주제: 기후변화
- 📍 유형: 국내
- 📍 구성원: 18명
- 📍 담당교사: 김현서
- 🏆 협력과 연대상 수상



'become! Bee, come!' 프로젝트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종인 '새'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지역 생태계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치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도록 진행된 생태 감수성 기반 프로젝트이다. 연천초등학교 4학년 1반 학생들은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과 학교 주변 환경에서 탐조 활동을 실시하며 새와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를 조사하고, 멸종위기종과 생태계 위기의 현실을 직접 마주하였다. 이러한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새 보호 활동, 환경 캠페인, 전시 및 발표 활동 등 다양한 실천 중심 활동으로 생태 감수성 활동을 확장하였으며,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능동적인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가치에 기반하여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로 배움을 확장하고, 생명 존중과 공존의 태도를 일상 속 실천으로 연결한 교육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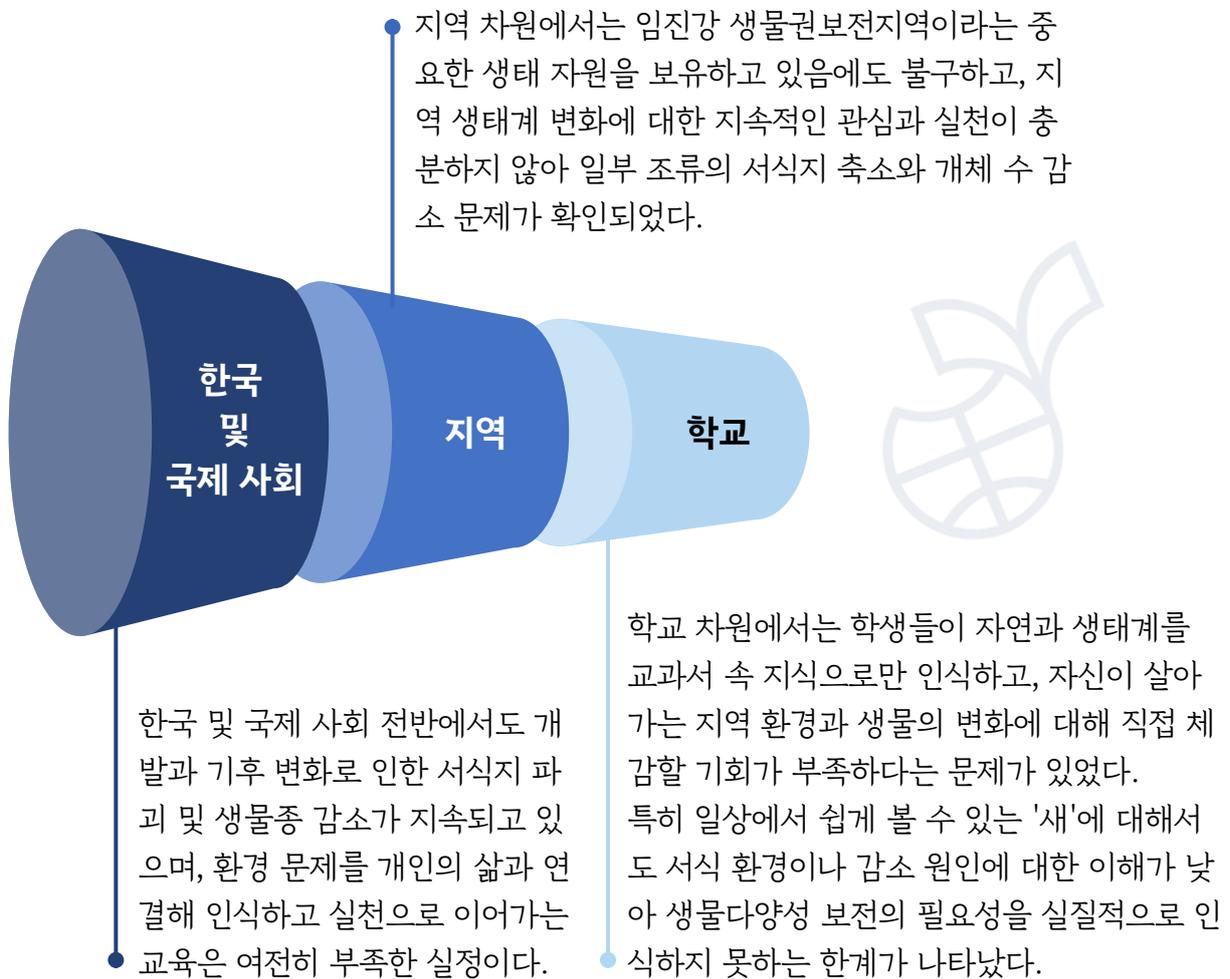


1. 문제 설정



팀(학교)에서 설정했던 문제 상황 또는 이슈 (학교, 지역, 한국 또는 국제 사회 차원)

본 프로젝트에서 설정한 문제 상황은 학교, 지역을 넘어 한국 및 국제 사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이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지역 생태 문제를 세계적 과제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수행 활동



상기 문제 상황 또는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한 활동 (일정, 장소, 주제, 참여자, 내용 등)

본 프로젝트는 생물다양성 감소 및 인식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찰, 탐구, 실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활동으로 운영되었다.

먼저 1단계로 연천초등학교 및 학교 인근 공원,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을 중심으로 탐조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탐조의 의미와 필요성'을 주제로 새의 종류, 서식 환경, 관찰 시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 사전 학습을 진행한 후 현장 관찰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쌍안경과 관찰 일기를 활용해 텃새·철새·멸종 위기종 등을 관찰하고, 서식지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기록하였다.

2단계로는 교실 수업과 연계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탐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크롬북을 활용해 관찰한 새의 특징을 정리하고, 서식지 감소 원인과 기후 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토의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 생태 문제를 단순한 정보가 아닌 자신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3단계에서는 배움을 실천으로 확장하는 환경 보호 활동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조류 먹이통 설치, 생명 존중 메시지를 담은 새 엽서 제작·나눔, 곤충 호텔 제작, 환경 보호 캠페인 및 전시·발표 활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연천군과 협업하여 멸종위기종인 호사비오리의 서식지 안내문에 들어갈 내용을 직접 구성하고, 디자인까지 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학생들은 기후행동 안내서를 공동 제작하여 연천군민들에게 배포하여 생태 감수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해결 방안을 기획하고 실천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 시민의 역할을 실제 행동으로 경험하였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마주한 어려움이나 과제, 또는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점과 그 이유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과 과제가 있었다. 첫째, **야외 탐조 활동은 날씨와 계절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일정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강우나 기온 변화로 인해 일부 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관찰 가능한 조류의 종류와 개체 수에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기대한 만큼 다양한 새를 관찰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자연 환경의 특성과 생태 관찰의 한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탐조 활동에 필요한 쌍안경과 새 탐조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기기가 충분하지 않아 활동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한된 장비를 여러 학생이 함께 사용하면서 개별 관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앱을 활용한 종 식별 및 정보 탐색 활동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를 통해 장비 확보와 활동 규모에 대한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학생들의 생태 관찰 경험과 이해 수준의 차이로 인해 활동 결과의 깊이에 편차가 나타났다.** 일부 학생은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관찰 포인트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 기간과 학교 일정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탐조 장비 및 디지털 기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단계별 활동 자료를 보완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또는 결과)에서 팀 구성원들이 새롭게 발견, 학습, 인식, 변화한 점

본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4학년 1반 학생들은 생태(환경)와 자신의 삶을 연결해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학생들은 탐조 활동을 통해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새들이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종임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조류의 감소와 서식지 변화가 기후 변화와 인간의 활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학습하였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문제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로 인식하게 되었다.



연천초 4-1 학생들

또한 관찰 기록, 조사 활동, 토의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은 생태 문제를 스스로 질문하고 원인을 탐색하는 탐구 태도를 기르게 되었다. 특히 환경 보호 활동을 직접 기획·실천하는 과정에서 '환경 보호는 어른이 하는 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신도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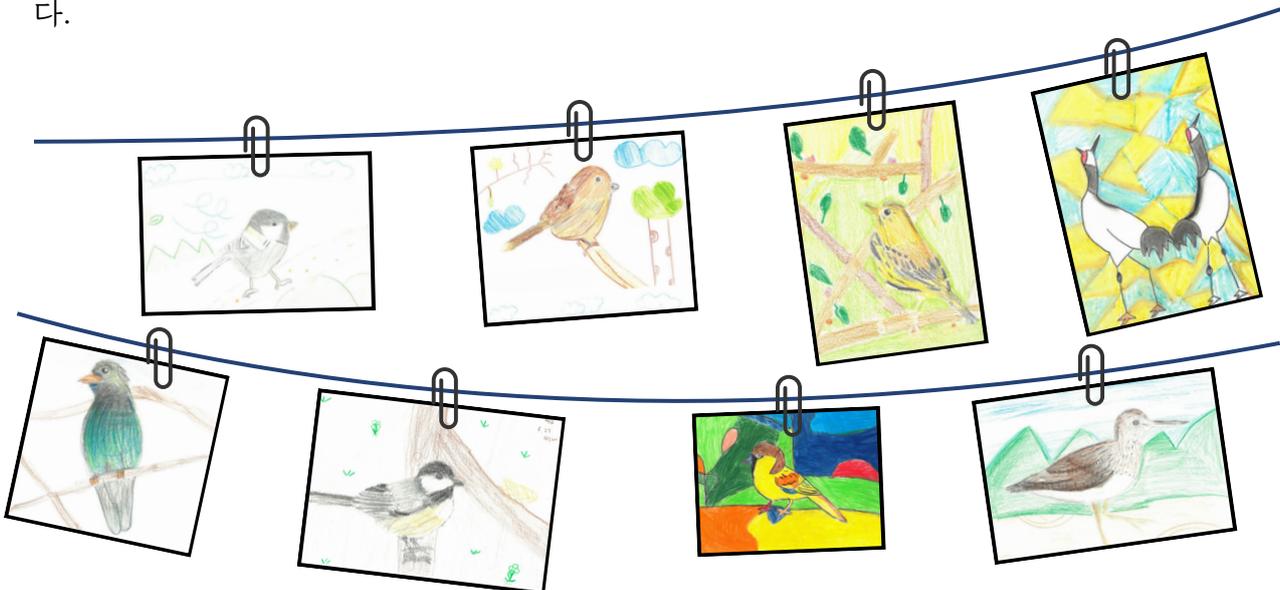
교사 역시 교실 중심의 환경 수업에서 벗어나, 지역 생태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학생 주도적 탐구와 실천 활동이 환경 감수성과 생태 시민 역량을 동시에 성장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생태 교육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 팀 이외의 공동체(학교, 지역사회, 외부 그룹 등)가 달라지거나 영향을 미친 점

본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는 팀 구성원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학교 차원에서는 프로젝트 활동 과정과 결과를 전교생과 공유함으로써, 생물다양성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학급을 넘어 학교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탐조 활동 결과, 학생들의 관찰 기록, 환경 보호 실천 사례가 기후 행동 안내서로 공유되면서 다른 학년 학생들과 교사들 또한 일상 속 자연과 생태에 주목하게 되었고, 학교 구성원 전반의 생태 감수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멸종위기종인 호사비오리 서식지 안내문을 제작하고 이를 지역에 알리는 활동은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주었다. 지역 주민들은 초등학생들이 지역 생태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환경 보전이 특정 전문가나 어른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임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스스로의 무관심을 돌아보며, 아이들과 함께 생태 보호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분리된 공간이 아닌, 생태 문제를 매개로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프로젝트는 학생 주도의 작은 실천이 학교 문화와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로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였다.



09

유산을 잇다: Legacy Connect

인천국제고 1-U



- 📍 주제: 문화유산
- 📍 유형: 국내+해외
- 📍 구성원: 17명
- 📍 담당교사: 한성진
- 🏆 주제상 수상



유산을 잇다: Legacy Connect는 국외 반출 문화유산을 주제로 하여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활동이다. 이 활동은 인포그래픽 제작, 모의 총회, 국제교류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인포그래픽 단계에서 부원들은 다양한 국외 반출 문화유산 관련 갈등 사례를 조사하여 인포그래픽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그 후 모의 총회 단계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을 대변하여 국외 반출 문화유산의 반환을 주제로 한 모의 총회에 참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등을 통해 활동 결과를 동아리 밖에 공유하며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1. 문제 설정

팀(학교)에서 설정했던 문제 상황 또는 이슈 (학교, 지역, 한국 또는 국제 사회 차원)

동아리에서 설정했던 문제 상황은 국외 반출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속적인 국제적 갈등 상황이다. 전쟁, 약탈, 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소유국에서 타국으로 유출된 국외 반출 문화유산의 소유권을 두고 다양한 나라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문화 유산들 중 상당수 역시 현재 프랑스 등 외국에 반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갈등이 유발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 회사 라이엇이 진행한 문화유산 환수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국외 반출 문화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으며, 국외반출 문화유산을 둘러싼 갈등 혹은 담론은 문화유산의 보존보다는 소유권 논쟁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I-U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나라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참고] 라이엇 문화유산 환수 프로젝트란?



라이엇 게임즈는 해외에 흩어진 한국 문화재를 되찾아오고 있음. 유물이 경매 등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바로 사올 수 있도록 미리 전용 기금을 준비해두는 방식을 사용하며, 지금까지 조선 왕실 유물 등 6점을 고국으로 되찾아왔음. 이러한 노력은 정부와 힘을 합쳐 이루어짐.

출처: 라이엇 코리아 홈페이지



상기 문제 상황 또는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한 활동 (일정, 장소, 주제, 참여자, 내용 등)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동아리는 우선 국외 반출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국외 반출 문화유산 인포그래픽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활동은 4월 중 진행하였으며, 동아리 부원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국외 반출 문화유산 중 하나를 골라 그 내용과 관련 갈등 양상을 조사하고 이를 인포그래픽의 형태로 만들어 서로 공유하였다. 이때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했던 문화유산으로는 로제타석, 엘긴 마블스, 석가삼존도 등이 있다. 그 이후 진행했던 활동은 국외 반출 문화유산의 반환을 주제로 한 **모의 총회**였다. 이 활동에서 부원들은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주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 나라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모의 총회에 참여하였다. 이때 모의 총회에 참여한 나라로는 영국, 이집트, 미국, 멕시코, 대한민국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입장표명서 발표와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그 후 협의체를 구성해 **문화유산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환 기준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활동은 국제교류로, **독일 학교와 화상 통화 및 택배 교환**을 진행하였다. 화상 통화를 통해서로의 명절이나 유명한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최근 진행되었던 APEC 2025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마주한 어려움이나 과제, 또는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점과 그 이유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가 국외 반출 문화유산을 주제로 진행한 활동의 결과를 알리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I-U 동아리의 원래 목적이었다. 그러나 학교 내부 사정과 독일 학교와의 학사 일정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교류 시작이 예상보다 늦어졌으며, 원하는 교류 방식이나 화상 회의 사이트의 차이, 그리고 인터넷의 문제로 인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여서 원래 계획했던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다. 또한 동아리 부원들 역시 계속 진행해왔던 활동보다는 새로운 주제로 독일 학생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어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의 활동은 진행하지 못하였던 점이 아쉽다. 만약 내년에도 국제교류에 참여하게 된다면 교류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하여 많은 활동을 함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학교 내부에서 알릴 기회가 많지 않았던 점이 아쉽다. 학교 축제에서 우리의 1년 활동을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활동집을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원하던 만큼 활동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모의 총회를 우리 동아리 외에 다른 학생들도 국가는 아니더라도 오퍼저버 제도를 이용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학사 일정 및 학교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또는 결과)에서 팀 구성원들이 새롭게 발견, 학습, 인식, 변화한 점

우선 국외 반출 문화유산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다. 국외반출 문화유산이 모두 불법적 경로를 통해 유출된 것은 아니라는 점과 관련 협약 및 사례를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이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국가가 직접 되어보며 해당 문제를 외교적으로 적절하게 풀어내는 방법 역시 고민해볼 수 있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우리가 모의 총회를 통해 도출한 결론의 한계점 및 단점을 피드백 받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프로젝트 진행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프로젝트 진행중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갈등에도 적절히 대처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



외부 전문가 강연



프로젝트 수행 결과, 팀 이외의 공동체(학교, 지역사회, 외부 그룹 등)가 달라지거나 영향을 미친 점

당초 계획보다는 부족했지만, 축제 중 동아리 발표 부스를 통해 우리 동아리의 활동 내용과 국외 반출 문화유산의 개념 및 사례를 간단하게나마 학교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특히 학교 학생들 중 의뢰 등 국외 반출 문화유산의 대표적인 사례 정도는 알고 있어도 구체적인 개념은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해당 개념을 보다 정확히 알려줄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모의 총회를 통해 도출한 결론인 문화유산의 디지털 보존 필요성 및 문화유산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반환 기준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한국 → 독일로 보낼 택배



독일 → 한국으로 온 택배

10

지피지기면 백국도 일국이다

부안고 대지의 탐험가



- 📍 주제: 문화유산, 인권·다양성
- 📍 유형: 국내+해외
- 📍 구성원: 23명
- 📍 담당교사: 이미진
- 🏆 주제상 수상



知彼知己면 百國도 一國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의 경쟁 구도가 아닌,
적을 알고 나를 알아 모든 나라들이 다양성과 다름을 알아가며 하나 되는 세상





팀(학교)에서 설정했던 문제 상황 또는 이슈 (학교, 지역, 한국 또는 국제 사회 차원)

부안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국제교류부가 처음으로 신설된 것은 단순한 부서 개편이 아니라, 학생들의 글로벌 시민성 함양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국제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방 소도시 학교는 대도시 대비 국제교류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세계 이해·외국어 활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교류부의 출범은 학생 주도의 교류 활동 체계를 정립하고, 해외 자매학교와의 지속적·구조적 교류 기반을 확보하며, 학교 교육 활동의 국제적 확장을 꾀하는 시도이다.

특히 부안은 고창 부안 국가지질공원이 위치한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세계적 브랜드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 이는 교과 학습, 지역탐방, 국제환경교육, 세계유산 프로젝트 등과 결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교육적 소재로 작용한다. 지역 차원에서 보면 국제교류 활동은 지역 자원의 가치 상승, 국제적 관심 확장, 지속가능관광 및 생태교육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와 학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는 미래세대의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중요한 국가 교육과제로 두고 있으며, 기후위기·문화다양성 존중·국제협력 등이 강조되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지방학교의 국제교류 확대는 국가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본다면 지역 기반의 국제교류는 한-뉴질랜드 등 해외 학교와의 지속적 학습 파트너십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지구환경 보존·문화교류·유네스코 SDGs 연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학생들이 단순한 방문·체험을 넘어 미래세대가 국제 환경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경험 학습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수행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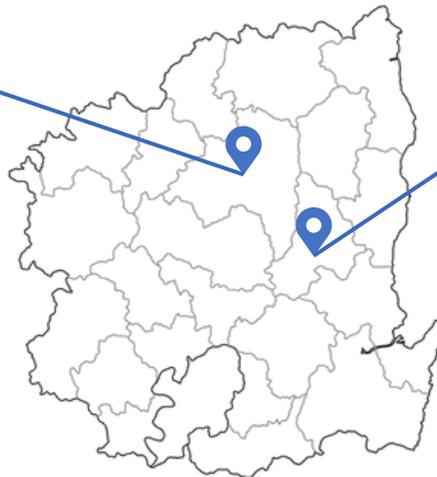


상기 문제 상황 또는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한 활동 (일정, 장소, 주제, 참여자, 내용 등)

지역 기반 세계유산과 지질자원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국제 교류 수업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동·청송 지역 현장체험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안동 지역

- 하회마을, 도선서원, 병산서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현장



청송 지역

- 주왕산 국립공원과 절골계곡, 얼음골
-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먼저 경북 안동 지역에서는 하회마을·도선서원·병산서원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현장**을 직접 탐방하며, 유교 건축, 선비정신, 한국 전통 생활문화가 보존된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가치를 체험적으로 학습했다. 학생들은 사전 학습 단계에서 조별로 유산의 지정 배경·역사적 의미를 조사하였으며, 현장에서는 안내사와의 질의응답, 유교문화 재현 프로그램 참여, 공간 스케치 및 사진 기록 활동을 수행하였다. 탐방 후에는 팀별로 발표 자료 및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국제교류 수업에 활용할 설명 자료로 정리하였다.

이후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탐방을 통해 자연유산과 지질환경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 활동이 병행되었다. 주왕산 국립공원과 절골계곡, 얼음골 등을 방문 하여 화산지형·퇴적암층·침식지형 등 자연과학적 요소를 탐구하고, 지질해설사와 함께 현장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지질의 형성과정, 지층 단면 관찰, 생태 환경 변화 기록 등을 직접 경험하며 지질유산의 학술적 가치뿐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마주한 어려움이나 과제, 또는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점과 그 이유

안동·청송 현장체험 및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성과가 있었음에도, 동시에 여러 현실적 어려움도 확인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접한 세계유산·지질학적 정보가 다소 전문적이고 학술적 난도가 높아 심화 학습으로 연결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청송 지질공원에서의 암석 성인(成因), 지질구조의 특징, 안동 지역 유교문화의 철학적 의미 등은 단순 관람만으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사전 배경지식이나 추가 학습자료가 필요했으나 정규 수업과 병행되는 일정 속에서 충분히 다루기 어려웠다. 학생들은 기초 정보는 이해했지만, "왜 유네스코 등재가 되었는가?", "지역성과 세계성의 연결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에 심층적으로 답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이는 자료 언어가 주로 학술 형식이거나 현장해설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의 요인도 작용하였다.

또한 국제교류부 설립 1년차라는 특성상 해외 교류학교와의 소통이 기대만큼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도 한계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리카턴 고등학교와 온라인 교류를 시도하였으나, 시차·학사일정 차이·언어 부담 등으로 상호실시간 참여가 제한되었고, 국내 학생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공유하고 피드백을 기다리는 형태가 반복되었다. 학생들은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동기 저하를 겪기도 했으며, 교류가 '연속성 있는 프로젝트'보다는 '단발성 활동'처럼 여겨지는 순간도 있었다. 특히 학생 주도적 질문·대화 시도가 활발하지 않아 실제 상호문화 이해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종합하면 본 프로젝트는 세계유산·지질공원이라는 수준 높은 학습 주제와 국제교류라는 큰 틀 속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심화학습을 위한 교육 설계 강화와 상대 학교와의 지속적 소통 활성화 전략 마련이 향후 개선점으로 요구된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또는 결과)에서 팀 구성원들이 새롭게 발견, 학습, 인식, 변화한 점

안동·청송 현장체험 기반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수업만으로는 체감하기 어려웠던 세계유산과 지질공원의 의미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안동 하회마을 도산서원 탐방을 통해 유교문화가 단순한 역사 지식이 아닌 삶의 방식과 가치 철학으로 이어져 온다는 사실을 이해했고, 유네스코 등재 기준과 보존의 중요성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인식이 확장되었다. 청송 지질공원에서는 암석·층리·지질형성 과정을 관찰하며 환경과 자연유산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자연을 미래세대와 함께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4차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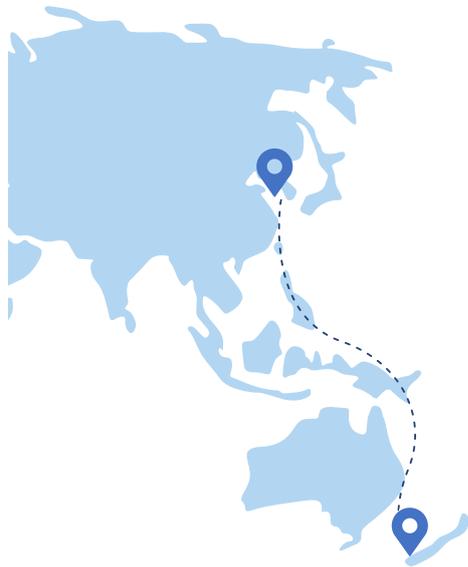
학생들의 변화는 학습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국제교류 발표 자료 제작 과정에서 조별 역할이 분명해지고, 영어 소개문 작성·영상 편집·사진 기록·발표 스크립트 제작 등 다양한 작업을 협력하며 협업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처음에는 영어 사용과 해외학생과의 소통에 부담을 느꼈지만, 준비 과정에서 자신감을 쌓으며 한국 문화를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였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교직원 간 협업의 가치도 확인시켜 주었다. 국제교류 담당 교사뿐 아니라 역사·지리·과학 교과 교사들이 자료 검토와 사전수업 구성에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질문을 안내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보완하였다. 행사 운영, 안전 관리, 기록 정리, 행정문서 및 예산 집행에서도 여러 교사가 역할을 나누어 협력함으로써 단일교실 수업을 넘어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확장형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협업 기반 프로젝트 운영 역량을 강화한 의미 있는 변화였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 팀 이외의 공동체(학교, 지역사회, 외부 그룹 등)가 달라지거나 영향을 미친 점

이번 안동·청송 세계유산·지질공원 탐방과 국제교류 프로젝트는 단순한 학습 활동을 넘어, 팀 외부의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학교 차원에서는 국제교류부와 국제교류동아리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학생 참여율과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나, 현장체험과 콘텐츠 제작 활동을 기반으로 학생 자발성이 높아지면서 동아리 활동이 안정화되었다. 이후 자율동아리 모집 시 국제교류 활동 경험이 홍보 요소로 활용되었고, 신입생과 다른 학급 학생들의 관심도 증가하여 국제교류 활동이 단발적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학교 브랜드 활동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또한 프로젝트 결과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확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학생들이 탐방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 관광자원·세계유산을 소개하는 영문 콘텐츠를 제작하며 지역 자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탐방 과정에서 만난 지질공원 해설사·문화유산 교육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차후 협업형 체험 학습 또는 지도자 초청 특강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는 학교가 지역 문화·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더 나아가 교육청 차원에서도 프로그램 기획이 추진되는 성과를 낳았다. 프로젝트 운영 경험이 축적되며 국제교류 기반 현장체험 모델이 하나의 사례로 정리되었고, 이를 교육청 사업 제안서와 연계하여 타 학교가 참고할 수 있는 확장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제교류·세계유산 교육을 접목한 프로젝트 운영 방식이 외부기관에서 관심을 얻으며, 향후 지역 단위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열렸다.

유네스코학교 학습주제

유네스코학교는 학교 실정에 따라 동아리, 학급, 학년, 교과, 학교 전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운영하며,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지향한다. 아래 학습주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학습과 실천을 연계해 추진한다.



■ 세계시민성, 평화의 문화, 비폭력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빈곤, 기후변화, 난민, 식량, 보건, 에너지, 물, 바다, 생물다양성 등 전 지구적 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이 지역과 개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한다. 국제사회의 노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성찰한다. 또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관용, 상호 존중과 비폭력의 가치를 배우고,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갈등의 원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화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환경 보호, 경제 발전, 사회 정의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학습한다. 생태계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포용적 사회의 실현 등 총체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실천하며, 일상 속 선택과 행동이 지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한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 4.7에 기반하여 세계시민교육(GCED)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 문화 간 학습, 문화다양성과 문화유산 존중

세계화 시대에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문화·언어·민족·종교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정체성과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이해하며, 상호 교류를 통해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폭넓은 시각을 형성한다. 또한 문화유산의 의미를 배우고, 이를 보호하고 계승하는 책임을 인식하며 문화다양성 존중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유네스코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교육·과학·문화 등 지적 활동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항구적 평화는 정치·경제·군사적 힘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지적·도덕적 연대에 기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1945년 11월 16일 유네스코 헌장이 채택되었고, 현재 전 세계 190여 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국제 규범 제정과 지식 공유, 국제협력 조정을 통해 평화와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14일 유네스코에 가입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54년 1월 30일 설립되어, 국내에서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정부 및 관련 기관, 시민사회와 유네스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과학·문화·청소년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통해 유네스코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확산하고, 국제회의 개최, 연구 및 출판, 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유네스코헌장 전문(前文)

1945.11.16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 원조와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의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 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2025 유네스코학교 교육의 미래 프로젝트 공모전 우수사례집

공존을 위한 교육, 협력과 연대의 학교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비매품/무료



ISBN 979-11-90615-71-6